

새한미디어, DVD 접착제 양산?

새한마텍 매각 등 경영정상화 강구 ... 기술력으로 추가매출 기대

새한미디어가 자회사 새한마텍 매각과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추진한다.

새한미디어가 채권단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, 새한미디어는 자회사 새한마텍을 2004년 초 코스닥에 등록시킨 뒤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. 새한미디어는 새한마텍의 지분 45.7%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장부가로 90억원에 이른다.

이와 함께 300억~500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추진해 하반기 안에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할 계획이다.

또 DVD 접착제 양산, TC(테이프케이블) 및 AFC(반도체 공정 등에 이용되는 접속제)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2004년 30억원, 2005년 300억원의 추가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새한미디어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실사를 거친 뒤 5월 중순 채권단이 최종안을 결의하게 된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4/10>